

지역 소식통

정읍시, LED 바닥 신호등 '눈길'

정읍시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진 교통 환경을 구축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시는 횡단보도 사고 예방을 위해 현대3차아파트 사거리 내 횡단보도 37M 구간에 바닥 신호등을 시범 설치했다고 밝혔다.

바닥 신호등은 시선이 아래로 향하게 되는 휴대폰 이용자들에게 신호 인식 정보제공을 위해 횡단보도 대기지점에 신호등과 연계돼 운영되는 바닥 신호등이다.

횡단보도 대기선 바닥에 LED 패널을 매달해 보행자가 바닥을 보면서도 보행 신호를 확인할 수 있고, 야간에는 차량 운전자의 시인성을 높여주는 효과도 있다.

시는 이번 바닥 신호등 설치를 통해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를 물론 교통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의 반응과 예방효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주요 횡단보도에 확대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군, 코로나19 예방

전 위생업소 방역 물품 지급

고창군이 코로나19 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관내 식당 등 위생업소 1100여곳에 마스크, 소독제 등을 긴급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전북도와 고창군이 물품을 확보해 식품위생감시원과 소비자식품감시원이 현장에서 식품위생적 취급기준 준수와 조리종사자 개인 위생관리, 다중이용시설의 감염병 예방 수칙 등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식당, 제과점, 이·미용실, 목욕장, 숙박업소 등에 손소독제 2790통, 마스크 1010개 등을 배정하고, 코로나19에 면밀히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군 보건당국은 음식을 매개로 전파될 가능성은 낮지만 찌개류를 함께 떠먹거나 술잔을 돌리는 행동, 근거리 대화 등은 자체적인 등의 식사예절을 지키도록 권고하고 있다.

/고창=김영식 기자

코로나-19 확산 방지 총력

유진섭 정읍시장

“개인위생수칙 준수 중점”

유진섭 시장이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밝혔다.

유 시장은 “코로나-19 여파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하는 것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며 “시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읍시는 현재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성과를 보이며 청정지역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시민들도 과도한 불안을 떨치고 일상적인 경제활동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생고을시장을 비롯한 지역 내 시장과 마트, 상점가의 고객이 대폭 감소하고 있다.

또,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인해 시민들이 외식을 자제하고 각종 모임과 행사를 취소하거나 축소하면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는 전통시장과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대대적인 방역 소독을



유진섭 정읍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이 정읍역 등을 방문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홍보물 등을 배부했다.

실시하고 예방 물품을 지원하며 지역경제 위축에 대응했다.

또, 유 시장을 비롯한 시청 직원들이 정읍역 등을 방문해 마스크와 손 소독제, 홍보물 등을 배부하며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기도 했다.

유 시장은 “정읍시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신속한 방역 조치와 시민들의 원활한 협조를 통해 확진자가 단 한 명도 나오지 않고 있다”며 “지나친 불안감으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기보다

는 개인위생수칙 준수에 중점을 두고 위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한편, 시는 아산종합병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운영하는 한편, 읍면동이·통장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 대책과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또한, 현재 유 시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재난안전대책본부를 24시간 가동하며 만일에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고창시니어클럽 “내가 서 있는 곳이 곧 런웨이”

전문 시니어모델 교육 시작

“이 나이에 젊음 연습하는 게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서둘러도 재미 있고, 새로운 도전 그 자체가 즐거움이예요.”

고창문화의전당 교육실. 레드카펫이 깔리고 빠른 비트의 음악이 흘러나온다. 모델로 거듭나기 위해서 혹독한 교육을 받고 있는 어르신들이 연습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백발의 한 노인사는 “내 나이가 일흔인데, 몇 내기 딱 좋은 나이다”고 활짝 웃음 지었다.

고창군 관내 50대 이상 어르신들이 참여하는 ‘전문 시니어 모델교육’이 이달부터 시작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년을 상징하는 주름은 생의 훈장과 같은 것이라며 더 이상 생물학적 시계에 갇히기를 거부하며 자신을 아름답게 꾸미는 이들이 늘고 있다.

고창군 시니어모델 교육은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고창시니어클럽이 맡아 고창문화의전당 교육실에서 오는 4월까지 진행된다.

미소 짓는 법부터 기본위킹, 무대매



너 등 전문 모델이 갖춰야 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다. 단점은 보완하고 장점과 개성을 극대화해 모델 지망생의 재능과 열정을 키우는데 중점을 둔다.

15명의 참여 어르신들은 2개월 과정으로 지역축제는 물론, 전국의 패션쇼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고창시니어클럽 관계자는 “나이를 아랑곳 하지 않고 꿈과 열정과 도전정신으로 삶을 활기차게 가꾸어 가는 시니어 모델들의 모습에서 강한 자신감과 의욕이 흘러 넘치고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어르신들이 활기차고, 편안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 발굴에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 ‘취업 솔루션’ 운영

정읍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결혼과 임신, 출산, 육아 등으로 경력단절을 겪는 구직 여성들을 돕기 위한 집단상담 프로그램 ‘새일 취업 솔루션’을 운영한다.

취업 준비 교실 집단상담 ‘새일 취업 솔루션’은 고용노동부의 지원으로 취업을 희망하는 참여자들에게 무료로 실시된다. 프로그램은 기본 과정(새일 스타트, 5일)과 심화 과정(새일플러스, 3일)으로 나누어 운영되며 직업상담사의 면담을 통해 적합한 과정을 결정하게 된다. 수료 후에는 수료증 발급과 실업급여수급자 구직활동 인정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교육 중의 교육비와 중식, 간식 등은 무료로 지원된다.

특히 집단상담을 수료한 참여자는 2020년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 교육 훈련(단체급식 전문조리사, 말티 사무원 양성과정, 학교마를 체험강사 양성과정, 사회복지기관 실무자 양성과정) 대상자로 우선권을 받을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부안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건립된 계획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부안 계획면 상서면 문화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군의회 통과

3월부터 정상 운영

부안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일환으로 건립된 계획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및 상생문화복지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이 부안군 의회를 통과했다.

민간위탁관리 동의안 통과에 따라 부안군은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운영위원회’와 위탁관리 협약을 맺고 3월부터는 정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민간위탁관리 동의안에는 작은 목욕탕, 체육단련실 및 다목적실 등 운영관리와 기타 문화복지센터 내 관리업무를 포함하고 있으며, 작은 목욕탕 및 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계획면 어울림문화복지센터 및 상서면 상생문화복지센터는 각각 연면적 730.72㎡와 998.21㎡ 규모로 작은목욕탕, 다목적실, 체육단련실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시설과 문화복지 프로그램이 가능한 시설이 다양하게 들어섰

다. 복지서비스는 작은목욕탕 및 체육단련실 이용과 다목적실에서는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활용할 계획이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역 현황을 가장 잘 아는 지역 주민들이 문화복지센터를 운영·관리,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센터 활성화와 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부안군은 이외에도 지역 주민들의 복지서비스 향상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9개 사업(7개면) 총사업비 297억원(보안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55억원), 동진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60억원), 주산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43억원), 하서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43억원), 선사문화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37억원), 운호 구름호수권역단위 종합개발사업(31억원), 유유마을단위 특화개발사업(18억원), 신흥마을 만들기사업(5억원), 화서마을 만들기 사업(5억원)을 2023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부안=김석진 기자

정읍시,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예방 적극

정읍시가 야생동물 개체 수 증가로 인한 농작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시는 농작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피해 예방시설 사업과 피해를 입은 농가에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는 야생동물 피해보상금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매년 고라니와 멧돼지 등 유해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지역의 농가를 대상으로 농업인들이 안정적인 생산 활동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함이다. 야생동물 피해 예방을 위해 태양광식 울타리, 전기울타리, 철제울타리 등 피해 예방시설을 설치할 경우 농가당 최대 300만 원

을 지원한다. 농작물 피해 보상은 발생한 피해에 대해 산정식을 적용해 농가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예산 범위 내에서 경제적인 손실을 보전한다. 시는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매년 증가함에 따라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보상금 산정기준을 완화했다.

기존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를 입은 농가에 피해보상금을 시설설치 여부에 따라 50~80% 이내로 차등 지급하였으나, 현재는 피해방지 시설설치 여부와 관계없이 발생액의 80% 이내로 산정해 지원의 폭을 확대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Mulberry Wine

You can now enjoy the wild ginseng that you dreamed of!

Gangsanmyeongju's Mulberry Wine.

정와대 만찬주!
부안강산뽕주를
선택했습니다.

오전엔 민족의 격조높은 기쁨을 오디 넉넉히 넣고 정성스레 빚어내어
부드럽고 오묘한 맛에 뒤끝이 깔끔함을 한껏 솔로 빚었습니다.
부안의 변산반도 청정해역의 해풍을 맞으며 영글어져
타 지역보다 당도와 질이 아주 탁월 합니다.
이 질 좋은 오디만을 선별하여 직접 생산 농가로부터
다량 구매하여 군민 소득 증대 사업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즐기는 만찬주!
부안강산뽕주와 함께 오디주의 **맛**을 느껴보세요.

GIFT SET 1호 | 750ml 2ea, 잔 2ea/16%

GIFT SET 2호 | 750ml 2ea, 잔 1ea, 오프너/12%

GIFT SET 3호 | 750ml 1ea/12%

GIFT SET 4호 | 500ml 2ea, 잔 2ea/12%

GIFT SET 5호 | 375ml 5ea/13%

GIFT SET 6호 | 500ml 참뽕2ea/12%,
복분자1ea/13%,
잔 1ea, 오프너

GIFT SET 7호 | 375ml 2ea/13%

TEL : 063-584-9960
www.gangsanwine.com